

## 감정 주체의 행방

— 박경리의 초기 단편 소설 세계를 중심으로

전 소 영\*

### 요약

1984년에 발표한 문학적 자전에서 박경리는 자기 문학의 뿌리가 존엄과 소외라는 단어에 닿아있다고 단언하였다. 가난 역시 삶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흉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훼손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 경험이란 다름 아닌 젠더 관련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련의 사건을 겪을 때 마다 박경리는 격렬한 수모감을 느꼈고 그 수모감이야말로 소외의 근거로서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다고 했다. 1926년에 태어나 1955년 데뷔를 했고, 격동하는 세월을 온몸으로 통과하며 창작 활동을 지속했던 박경리 문학의 기저에서는 이렇듯 수모감이라는 감정이 놓여있었다.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었던 타자화의 경험, 그에 굴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담보한 이 감정이 박경리의 삶과 문학의 가장 내밀한 곳에서 박동했던 셈이다. 그리고 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은 바로 1950년대 단편소설의 세계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계산, 「흑흑백백, 「전도」를 대상 삼아 박경리의 초기소설에 나타난 감정 주체의 형상과 방법론적 수치심의 쓰기에 관해 논구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박경리, 감정 동학, 수치심, 계산, 흑흑백백, 전도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목차

1. 수모감이라는 심부
2. 감정 주체의 탄생
3. 규율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기제로서의 수치심
4. '안나 카레니나'의 전유를 통한 수치심의 인과 탐구
5. 소결: 양양적 자존 수립의 여정

## 1. 수모감이라는 심부

1984년 여름, 강원도 원주의 녹음 안에서 『토지』 원고를 집필 중인 박경리에게 한 신문사로부터 이런 질문이 도착한다. ‘무엇이 당신의 오늘을 이루었는가.’ 물음에 답하기 위해 기억의 서고 앞을 서성이던 그는 한참 만에 이런 글귀를 적어 내려간다. “흔히 말하듯 이 설움 저 설움 다 해도 배고픈 설움만 할 것인가. 그러나 가로질러온 내 발자취에서 어떤 궁핍보다 잊지 못하는 것은 내 존엄이 침해당한 일이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피멍 같은 것, 인간의 존엄과 소외, 이것이 아마도 내 문학의 기저(基底)가 아니었다 싶어진다.”<sup>1)</sup>

문학적 자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며 박경리는 이처럼 자기 문학의 뿌리가 존엄과 소외라는 단어에 닿아있다고 단언하였다. 가난 또한 그의 과거에 생채기를 낸 경험이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흉터는 존엄이 훼손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생각이 “음각(陰刻)처럼 마음에 뚜렷이 새겨”<sup>2)</sup>진 몇 가지 사건으로부터 촉발되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그 사건이란 다름 아닌 폭력과 연관된 것이었다.

1950년대 중반의 어느 늦은 밤, 삼선교의 영어학원에서 귀가하던 박경

1) 박경리, 「나의 문학적 자전」, 『한국일보』, 1984.7.1.; 박경리,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나남, 1994, 138면.

2) 위의 글, 128면.

리는 술 취한 낯선 남자로부터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했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친과 갈등했던 기억도 잠복해있다. 학교 공부 대신 시집이나 가리는 아버지에게 항의하다가 따귀를 맞았던것이다. 그럴 때마다 박경리는 한정 없는 분노, 그것을 웃도는 “격렬한 수모감”을 느꼈는데 이 수모감이야말로 말로 그에게는 존엄이 침해되었다는 느낌, “어떤 무엇으로 무마되지 않는”<sup>3)</sup> 소외의 근거였다.

1926년에 태어나 1955년 데뷔를 했고, 격동하는 세월을 온몸으로 통과하며 창작 활동을 지속했던 박경리 문학의 기저에서는 이렇듯 수모감이 라는 감정이 놓여있었다.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었던 타자화의 경험, 그에 굴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담보한 이 감정이 박경리의 삶과 문학의 가장 내밀한 곳에서 박동했던 셈이다. 그리고 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의 초창기 소설 세계이다.

박경리의 소설 세계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누적되었지만 기존 연구사는 상대적으로 『토지』 등의 대표작에 관한 논의에 편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근자에도 『토지』에 나타난 트라우마나, 자유연애, 인물의 욕망, 재난에 대한 인식에 관한 논문이 제출되었고<sup>4)</sup> 그 외에도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등 주요 작품에 대한 고찰이 주를 이룬다.<sup>5)</sup> 그에 비하면 박경리 문학 세계의 원형이라고 할 만한 1950년대 단편소설은 비교적 큰

3) 위의 글, 137면.

4) 관련하여 최근 논의를 갈무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김승중, 「박경리 『토지』의 근대 정치 담론」, 『현대문학의 연구』 70, 현대문학연구학회, 2020.

김연숙, 「고통(苦痛)의 서사(敍事)와 응답(應答)의 윤리(倫理) -박경리(朴景利) 『토지(土地)』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8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0.

유지현, 『『토지』 인물의 욕망 연구』, 『우리어문연구』 69, 우리어문학회, 2021.

5) 공임순, 「한국전쟁의 과공과 순국자(殉國者)에 반하는 순애자(殉愛者)의 무/국적 신체들-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대한 소고」, 『한국학연구』 5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한금윤,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공간과 삶으로서의 은유」, 『한국근대문학연구』 21권 1호, 한국근대문학회, 2020.

이혜경, 「박경리의 소설에 나타난 비극적 세계관 연구 -『김약국의 딸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84, 우리말글학회, 2020.

조명을 받지 못한 편이다. 이는 박경리의 초기 문학 세계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관념성과 추상성이 범람하는 1950년대에 박경리의 단편소설이 현실을 예리하게 포착하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신변소설적 성격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내면성과 낭만성을 확대’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공존했던 것이다.<sup>6)</sup>

초기소설에 관한 기왕의 연구사를 일별해보면, 인물의 성격 및 갈등 재현 방식에 착목한 기초 논의를 거쳐<sup>7)</sup> 폭력, 연애, 여성 미망인 담론 등의 개별 주제로 주제가 분화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sup>8)</sup> 이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참고해볼 수 있는 논문은 “전쟁과 전후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이 박경리 소설의 중요한 축이며 “전후 상황에 대한 우울증적 반응, 침묵과 통곡 같은 내성화된 반응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기인”<sup>9)</sup>한다고 강조한 김양선의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착안에 동의하되 박경리의 초기 소설에서 부각되는 여성 인물의 섬세한 감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착목하여 그것이 젠더화된 전후 세계 인식의 잣대 및 산물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간 조명이 미비했던 「계산」, 「흑흑백백」, 「전도」에 주목

6) 서영인, 「박경리 초기 단편 연구-1950년대 문학 속에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999.2., 260면.

7) 백지연, 「박경리 초기소설 고찰」, 『慶熙語文學』 14, 慶熙大學校 文理科大學 國語國文學會, 1994.

김혜정, 「朴景利의 초기 단편소설 연구-여주인공의 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개신어문학』 11, 개신어문학회, 1994.

김상옥, 「박경리 초기 소설 연구 - 증오의 수사학」, 『현대소설연구』 4,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장미영, 「박경리 소설 연구 :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예니, 「박경리 소설의 비극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8) 김정희, 「박경리 단편소설에 나타난 폭력과 희생양 고찰 -「군식구」·「외곽지대」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57,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8.

김예니, 「박경리 초기 연애소설 속 여성 인물의 변화 양상 - 「애가」, 「성녀와 마녀」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7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1.

9) 김양선, 「지적 해부와 민감성 사이, 전후 현실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 - 박경리의 전후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7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12., 132-133면.

하여 작중 인물이 지닌 감정 주체로서의 면모와 수치심의 방법론적 쓰기에 관해 논구할 예정이다.<sup>10)</sup>

이때 참고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감정 동학(emotional dynamics)이다.<sup>11)</sup> 문화 연구 안에서 감정에 관한 논의는 1) 감정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인식되어왔다는 점, 2) 이성-우월, 감정-열등의 이분법 안에서 감정을 젠더나 인종적 타자의 전유물로 인식해왔다는 점, 3) 감정을 역사적,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읽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 간과되어왔다.<sup>12)</sup> 그러나 비교적 근자에 이르러 “감정은 그것을 유발하는 구조적 권력관계 및 신분 관계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sup>13)</sup>는 주장이 나타났다. 감정이 인간의 성찰적 사유와 행위의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이 감정 행위의 주체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배후에 놓인 사회적, 규범적 질서와 길항하면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경리가 구축한 초기 소설 세계에는 이 감정 주체로서의 인간상이 등장한다. 이들은 대개 가족을 부양하는 싱글 여성 — 미혼이거나 기혼이었

10) 박경리의 초기 소설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도	제목	발표지면
1955	計算	현대문학 8월호
1956	黑黑百百	현대문학 8월호
1956	군식구	현대문학 11월호
1957	剪刀	현대문학 3월호
1957	不信時代	현대문학 8월호

이 글에서는 기왕에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불신시대」 이전의 초기 소설을 주요 분석의 대상 삼되 중심인물의 형상이 완전히 다른 군식구를 제외하기로 한다.

- 11) 감정의 작용을 규정하는 용어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빈번하게 회자되는 정동(情動, affect) 역시 그 예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역어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정동이라는 단어 대신, J.M. 바바렛이 『감정의 거시사회학』(박형신 외 역, 일신사, 2007.)에서 언급한 개념에 기대어 ‘감정적 상황 속에 놓인 개인이 감정 행위의 주체로 거듭나는 양상’을 감정 동학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 12) 이명호, 「문화연구의 감정론적 전환을 위하여: 느낌의 구조와 정동경제 검토」, 『비평과 이론』 20권 1호, 비평과 이론 학회, 2015년 봄, 116면.
- 13) J.M.바바렛, 『감정의 거시사회학』, 박형신 외 역, 일신사, 2007, 54면.

다가 모종의 이유로 혼자가 된 여성으로 작가 자신을 상기시키는 존재이기도 하다.<sup>14)</sup> 무엇보다 이들은 작중에서 작가의 삶에 인장(印章)처럼 찍힌 수모감의 기억을 선명하게 재생해낸다.

## 2. 감정 주체의 탄생

주지하듯 1950년대의 전후 한국 사회에서는 폐허화한 국가 재건이라는 구호 아래 지배 이데올로기 및 자본주의가 긴밀하게 동원, 결합되었다. 다만 이 국민화, 산업화의 과정은 철저히 젠더화하였고<sup>15)</sup> 전쟁 이후 (비)자발적으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여성은 생존 문제와 차별적 인식에 가열하게 충돌해야 했다.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면서 인물의 감정을 전략적으로 돌을새김하고 있다.

먼저 데뷔작 『계산』(『현대문학』, 1955.8.)은 감정에 관한 독특한 논쟁을 갈무리한 소설이다.<sup>16)</sup> 중심인물은 연인과 결별하고 고향 대구를 떠난 회인으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중이다. 어머니의 와병, 낮은 경제력 등으로 고통받는 그는 늘 “아득한 바다를 향해 언제나 혼자 높이 서 있다는 서양 어느 항구의 여신상(女神像)처럼 영원한 고독 속에 불쑥 솟은”<sup>17)</sup> 듯한 느낌을 받는다.

14) 주지하듯 박경리는 1947년 김행도와 결혼해서 딸과 아들을 얻은 후 1950년 남편과 사별했다. 1953년에는 서울로 올라와 잠시 신문사 및 은행에 근무하며 생계유지를 도모했는데 이때의 경험은 1950년대 단편소설 속에 다채로운 형태로 녹아있다. 박경리의 생애에 관해서는 최유찬, 『박경리의 『토지』 읽기』(세창미디어, 2018.)를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15) 고선희, 「정비석 소설의 섹슈얼리티와 전후의 자본주의적 주체 구성」, 『한국사상과 문화』 84, 한국사상과 문화학회, 2016. 87-88면.

16) 원제 역시 이러한 의도를 반영한 ‘불안시대’였다. 김동리가 현대문학지에 박경리와 소설을 추천하면서 ‘계산’으로 제목을 바꾸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제대로 ‘불안’이라는 명사가 제목에서 내세워졌다면 박경리의 착안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17) 박경리, 「計算」, 『현대문학』, 1955년 8월호, 114면.

이러한 느낌의 배후에는 물론 미혼 여성이 살아가기에 결코 녹록지 않은 전후의 상황이 놓여있다. 다만 이러한 배경이나 인물의 내력은 사건의 서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면밀한 묘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난다. 이를테면 소설의 전반부에는 회인이 낯선 사람들로부터 전자표와 신문값을 빚지는 삽화가 등장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매번 회인은 “왜 자의적(恣意的) 헤택을 나에게 베풀느냐고, 상대방의 호의에 반발”<sup>18)</sup>하는 한편, “통명스럽게 한 자기의 말이 (...) 언짢게 들려서 또 한번 당황”<sup>19)</sup>해야만 했다. 스스로 매몰차고 인색하다고 여길만큼, 타인의 친절을 거대로 간주하고 경계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이처럼 작중에서 인물의 복잡한 내면 세계 및 감정은, 전후 현실이 그에게 가한 고난의 강도와 밀도를 짐작하게 하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되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회인은 그 자체로 감정을 세계 인식의 판단 기준 삼는 감정 주체의 면모를 지닌 인물이다.

정아는 회인을 보고 경구에 대한 처사를 서릿발 보다 냉혹 하다고 했다. 그때 회인은 정아 얼굴을 뚜러지게 보았다 강한 광채가 번득이는, 이상히도 열린 눈이었다.

「그래 너는 사실만 가지구 따지는 구나. 나를 냉혹하다고 생각하니? 그래도 좋다. 사실 지금까지 난 경구끼에 대한 내 처사가 옳았고, 그른 걸 생각해 본적이 없었어. **내 감정이 모든 것을 포기한 그것 뿐이야**(이하 굵게는 인용자 표시)」 (...)

「제발 덕분에 그 실현성 없는 이상주의론은 집어 치워요 약하고 추한 것에 밤낮외면만 했다가는... 참 비겁한 짓이야 너는 언제까지나 정신적인 것만 가지구 치드는데 어디 세상이 그렇던? 어디든지 더러운 건 굴러 있어요. 난 사는 이상 그런것도 긍정 하련다. 그리 까다롭게 굴 필요가 뭐

18) 위의 글, 112면.

19) 위의 글, 109면.

있니. 넌 유물적 머리통이니 뭐니 하지만 난 그걸 생활적이라 생각한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애써 파들어갈 건 뭐 있니? 감정은 늘 현실의 피해자야 피해자」

「그럼 감정을 죽임으로써 현실의 피해자 보다 더 큰 피해자가 될적엔 넌 어땡힐테야」

회인이는 날카롭게 노려보며 다잡는다. 초롱 초롱한 눈이다.

「너는 감정 감정 하고 그 감정이 아주 잘못이나 저지른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난 **그 감정이 작란이 아닌 이상 정확한 처리를 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기에 뒤에 오는 것에도 충분히 책임지며 후회하는 일이 없으리라 생각 한다. 풀어지지 않는 매듭을 안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결혼을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구 내가 말하는 이성(理性) 운운은 상대방을, 그러구, 나를 속이는 허위를 강요하는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이성이기 보다 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실리적 수단에 지나지 못해.** 넌 아까도 이상주의니, 인생을 긍정하려면 더러운 것도 용납하라 했지? 너처럼 인간 사회가 허위와 이기 그것이 본질이라면 연애란 자연적으로 소멸 된거야. 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첨부(添附)된 결혼이란 계약서만 필요 하겠지. 사실 현실이 그것 뿐이라면 난 이상주의자도, 아무것도 아닌 무위(無爲)의 생존자이구나. 금력과 권세를 쟁취하는 의욕이 없는, 아니 능력이 없는 인간이니까, 그것 뿐이다. 경구씨와 연애과정이 사라졌다면 결별(訣別)하는 그것 뿐이다.」<sup>20)</sup>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작중에는 감정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논쟁이 긴 지면에 걸쳐 펼쳐져 있다. 과거 회인은 약혼을 후회하는 연인에게 결별 선언을 했다. 정아는 그런 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서울까지 찾아왔지만 회인은 “감정적으로 그와의 화해(和解)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만 무엇보다 확실”<sup>21)</sup>하고 단언할 뿐이다. 그리하여 둘 사이에서는

20) 위의 글, 116면.

21) 위의 글, 113면.



다소 길고 격렬한 언쟁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초점이 되는 것이 다름이 아닌 감정과 이성의 문제이다.

회인의 입장은 자명하다. “감정이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경구와의 재결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아는 그 생각이 “실현성 없는 이상주의”이며 ‘이성적’ 판단이 불가피함을 역설한다. 이때 ‘이성적’이라는 수사는 ‘현실적’, ‘합리적’이라는 말의 이음동의어로, 결국 결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자면 미혼 여성에게 결혼보다 더 나은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다.

정아의 충고는 전후 사회 속 미혼 여성의 입지를 환기시킨다. 전쟁 발발 이후 여성은 전선에 동원된 남성을 대신하여 생계 유지를 위해 노동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50년대에는 직업 여성의 수가 급증하였고 다수의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의 진출이나 사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며 관련 담론이 다양하게 창출되기도 하였다.<sup>22)</sup> 이러한 여성 노동 인구의 증가세를 두고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지만<sup>23)</sup>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규제는 오히려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다.

가령 1950년대 발흥했던 여성에 관한 담론은 양가적이었다. 전후의 시기에는 기존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이 허물어지면서 특히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는데 이에 따라 여성 역시 자유롭고 민주적인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정립해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였다.<sup>24)</sup> 그러나 이를

22) 1950년대에 창간된 월간 『직업여성』, 『여원』 등에 실린 직업 여성 관련 수기, 좌담 등, 그리고 1950년대 소설 속에 다양하게 재현된 직업 여성의 형상은 이 시기 직업 여성 계층의 증가 및 담론의 형성을 방증한다. 나보령, 「1950년대 직업여성 담론을 통해 본 여성들의 일과 결혼 - 정미석의 여성전선, 세기의 종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23, 한국문학과 예술 학회, 2017.9., 324면.

23) 위의 글, 326면.

24) 해방 이후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면서 제도적으로는 여성 역시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주체로 설 수 있게 되었지만 의식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변화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진 때는 전후라고 할 수 있다. 이선미, 「젊은 『여원』, 여성상의 비등점 - 1950년대 『여원』의 ‘독신여성’ 담론을 중심으로」,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286-287

가부장제의 위기 혹은 윤리의 붕괴로 인식한 당대 사회는 “여성의 자유에 대해서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였”<sup>25)</sup>고 훼손된 전통을 복원시킨다는 미명 하에 전근대적 유희적인 규범에 의한 가족 윤리 및 현모양처 담론을 강요할 때도 있었다.<sup>26)</sup>

예컨대 생활을 위해 직장에 나가는 여성들은 일터에 복무하면서도 ‘여성임을’ 잊지 말아야 했다.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성역할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윤리적 비난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sup>27)</sup> 이는 곧 1950년대 국민국가 수립 과정의 젠더화화도 연결이 된다. “국가(민족)를 위해 ‘개인’은 유보되고, 어머니나 아내인 여성만이 국민으로 호명”<sup>28)</sup>되면서 결혼이 여성의 중요한 과업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러한 당대의 정황을 염두에 두고 다시금 두 인물의 대화를 들여다본다면, 정아가 내세우는 ‘이성적’ 혹은 ‘생활적’인 삶이란 곧 현실과 타협하여 가정 내지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정아는 사회의 규율과 권력을 내면화한 당대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이성적’이라는 수사는 안정된 삶을 위해 개인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에 순응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회인이 보기에 정아의 말대로 사는 것은, 지극히 “유물적”인 “계량기처럼 수학적인 여자”<sup>29)</sup>가 되는 일이며 삶을 객체화하는 길이기도 했다. 이에 그는 차라리 ‘무위(無爲)의 생존자’가 될지언정 감정의 ‘정확한 처리’를 믿겠다고 단언한 것이다. 정아가 원하는 이성적 행동의 외부에서

면.

25)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제 45집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6, 31면.

26) 이를테면 1950년대에는 여성을 열녀나 효부로 만들고자 하는 ‘고안된’ 전통론이 득세했다. 논개, 신사임당, 허난설헌 등이 ‘현대의 여성의 모범상으로 제시되었고 현모양처에 해당되지 않는 양공주, 자유부인 등의 여성들은 전통을 해치는 존재들로 그려졌다. 위의 글, 22면.

27)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260면.

28) 이선미, 앞의 글, 280면.

29) 박경리, 「計算」, 앞의 책, 115면.

약동하는 감정이, 회인이 자유로운 개인으로 자신을 정위하게끔 이끌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회인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서 비롯된 역동적인 감정을 표출하며 스스로의 삶을 지탱해나가거나 갱신하는 감정 주체의 위상을 지닌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계산」은 이렇듯 감정을 한 시대가 개인에게 내면화시키는 이데올로기나 관습과 길항하는 것, 곧 주체적 삶의 담보물로 명명한 소설이다. 박경리는 이처럼 등단작을 통해, 순응과 타협이 이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전후 사회 안에서 그에 반발하는 감정의 힘에 관해 역설하였다. 이 감정 주체의 형상은 뒤이어 발표된 소설 속에서 보다 적극적, 발전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동시대의 다른 소설에서 찾기 어려운 박경리 소설만의 이채라 할 만하다.

### 3. 규율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기제로서의 수치심

감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삶의 한복판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사회의 영향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다. 즉 “감정은 하나의 사회적 산물(social thing)”이며 “감정적 느낌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러한 느낌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이 감정 자체의 핵심적 요소”<sup>30)</sup>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역설한 윌리엄 레디에 따르면 한 사회는 안정을 유지하려는 목적하에 감정의 체제를 마련하며 개인은 종종 이것과 직면하거나 충돌하는 과정, 즉 감정의 항해(navigation of feeling) 과정을 거친다.<sup>31)</sup> 「계산」 이후 발표된 「흑흑백백」과 「전도」에서 박경리는 연달아 주인공이 겪는 감정의 항해를 재현하는데 이는 당대의 지배적 권력관계와 자본이 주체의 감정을 어떻게 구성하거나 활용하는지를 폭로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30) J.M. 바바렛, 앞의 책, 113면.

31) 윌리엄 레디, 『감정의 항해』, 김학이 역, 문학과 지성사, 2016, 196면.

여기서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의 골자는 바로 수치심이다. 수치심은 감정의 주체가 ‘비정상적’인 약함을 자기 안에서 발견할 때 생겨난다. 한 사회가 정해둔 ‘정상성’의 규범이나 그것을 내재화한 타인의 시선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인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수치심은 사회가 개인을 통제하는 기제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실제로 모든 사회는 혐오와 마찬가지로 수치심을 통해 특정한 집단과 개인을 선택하고, 그들을 ‘비정상’으로 구별하여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해 부끄러워하게 한다. (...) 이런 점에서 수치심은 역사상 가장 널리 퍼져 있던 처벌 방식의 일부다.”<sup>32)</sup>

그런 차원에서 박경리가 1950년대에 써낸 소설에서 가장 돌출한 감정이 바로 이 ‘수치심’<sup>33)</sup>이라는 사실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작중 인물들은 부당한 사회에 대해 직접 발화하지 않지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양태와 강도를 통해 부조리가 암암리에 드러난다. 가령 두 번째 소설 「흑흑백백」(『현대문학』, 1956.8.)에서부터 박경리는 전후의 처참한 풍광 속에서 여성 인물이 수치심에 휩싸이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해낸다.

중심인물 혜숙은 「계산」의 회인처럼 감정을 도덕적 판단의 기준 삼는 일종의 「결벽성」을 지닌 인물이다. 전쟁 중 남편을 잃고 「쥐꼬리 만큼의 월급 자리를 환도한 서울에서 얻」어 어린 딸과 친정어머니를 부양해왔으나 얼마 전 실직을 하였다. 「하루살이처럼 위태롭고 서글픈」 나날 속에서도 상사가 자신을 성적 향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만큼은 “분하고 원통”<sup>34)</sup>해 사표를 던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끝없는 가난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혜숙은 경제 활동의 마지막 보루였던 깃돈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되자 결국 마지막 수단을 취하기로 한다.

32) 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역, 민음사, 2015, 164면.

33) 때로는 ‘모욕감’으로 변주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수치심과 연결된 감정들이다. 마사 누스바움에 따르면 “수치심은 모욕을 주는 행위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모욕감은 수치심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모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가해졌다’는 사고가 추가된다.” 위의 책, 190면.

34) 이상 직접 인용문은 박경리, 「黑黑百百」, 『현대문학』, 1956.8., 113면.

그것은 자신에게 호감을 지닌 남편 친구 현 선생의 “교묘하게 감추어진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내일 학교에 나오세요. 교장이 만나 보자구 했으니 열시반쯤 오시기로 하지...」

그러고는 고객을 들어 혜숙을 바라본다. 교묘하게 감추어진 감정이 이글이글 끓고 있다. 혜숙은 죄지은 사람처럼 그것을 피하는 수 밖에 없었다.

「참 죄송스럽습니다. 이러한 걱정까지 시켜서.....」

혜숙은 계면 적게 고개를 숙인다. 현선생은 그러한 혜숙을 슬그머니 바라만 보았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생전에는 그렇게 친구도 많더니만」

혜숙은 감정의 연막(煙幕)을 치는 동시에 친구의 아내였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슬그머니 해보는 것이다. 현선생의 얼굴에는 약간 표정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일순간이었다. 그러나 평정한 표정으로 돌아 간 현선생 얼굴에는 다시 이상한 웃음이 감돈다. 혜숙은 **치욕과 패배의 감정**이 그의 부드러운 귓전까지 붉게 물드리는 것이었다. 현선생의 웃음은 혜숙의 연막 전술에 대한 조소(嘲笑)였기 때문이다.<sup>35)</sup>

그러나 교사 자리 알선을 부탁받은 현은 혜숙의 속내를 알기라도 한다는 듯 조소를 흘리고 그녀는 “치욕과 패배의 감정”을 느낀다. 생존을 위해 직업을 구하려는 여성의 분투가 담긴 이 소설에서, 이렇듯 중심인물은 자신을 성적 대상화 하는 상사에 분노했으면서도 종내 남성에게 직업을 알선받으며 견잡을 수 없는 수모감 속으로 침잠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 과정에서 혜숙을 포박한 삶에 대한 불안감이나 치욕 등의 감정은, 여성의

35) 위의 글, 120면.

경제 활동이 결코 쉽지 않은 당대의 상황과 위태로운 현실을 모두 가시화한다.

즉 “전후 한국사회를 지탱한 힘은 여성들의 강한 생활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정 바깥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항상 사회문제로 비화되기 일쑤였다. 전쟁은 여성에게 삶의 무게와 사회적 비난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 것이다.”<sup>36)</sup> 즉 소설 속에서 수치심이라는 감정의 격랑이, 당대가 규정한 ‘정상적 여성’의 범주가 지닌 부조리한 본질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저 외투에 저 마후라는 그저께 어느 중국요리 집에서 올다가 나오던 여자의 인상적인 복장 그것에 틀림이 없다. 장교장은 그 여성이 이제서 학교에 오는가 그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혼자서 속으로 계딱지만한 장안이로군, 세상이란 넓고도 좁은거야, 하며 쓰게 웃는다. (...) 혜숙의 침착 하고 압전한 태도에 접하자 장교장은 참 앙큼스런 계집이란 생각이 불시에 들었다. 그는 혜숙을 힐난하는 듯한 눈초리로 아래 위로 훑어 본다. 그러한 사나운 눈초리가 혜숙의 복부에 가서 머물자 장교장의 얼굴에는 차거운 경멸의 빛이 퍼져 갔다. 혜숙은 사정 없이 아래 위로 훑어 보는 장교장의 채도없는 눈이 몹시 불쾌했다. 그와 동시에 의복을 벗고 그의 앞에 선 것 같은 수치심이 일종의 분노로서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드리는 것이었다. 혜숙은 단정하게 교장을 쳐다 보던 눈을 할 수 없이 무릎 위에 얹은 손으로 떨어트리고 만다.

「현선생에게 사정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 가시요, 현선생을 통해서 기별하리다.」

장교장은 통명스럽게 말을 잘라 버린다. 혜숙은 직감적으로 일이 틀린 것을 느꼈다. 깊은 절망이 한동안 그를 멍하게 만든다.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이 가슴을 억누르는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의 애원을 한번 시도하듯

36) 이하나, 「전쟁미망인 그리고 자유부인」, 김성보 외,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1950년대』, 창비, 2016, 52면.

이 장교장의 얼굴을 살그머니 쳐다 본다. 그러나 장교장의 냉소는 눈속  
뿐만 아니라 입어저리까지 퍼져 가고 있다. 이러한 어쩔수 없는 분위기  
에 더 견디어 나갈 수 없음을 느낀 혜숙은 마치 기계인형(機械人形)처럼  
벌떡 의자에서 일어 섰다.<sup>37)</sup>

혜숙의 구직 활동은 이렇듯 최종적으로 실패하고 만다. 그 이유인즉 현  
이 소개한 장 교장이 그녀를 부정한 여자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그는 과  
거에 한 요릿집을 방문했다가 옆방에서 중절 수술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  
는 남녀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때 보았던 여성의 옷과 혜숙의 복  
장이 같다는 이유로 장 교장은 그녀를 “앙큼스러운 계집”이라고 넘겨짚는  
다. 혜숙은 자신에게 “차거운 경멸의 빛”을 보내는 장 교장 앞에서 최대치  
의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작중에서 혜숙을 장악한 이 수치심의 감정이  
당대 사회가 담보한 도덕의 이중성을 폭로하는 도구로써 동원되고 있다  
는 점이다. 기실 이 소설은 요릿집에서 불륜 관계에 있는 유부녀 황금순  
을 기다리고 있는 장 교장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그에 관해 서술자는 이  
런 “전과(前科)”는 물론 한 두 번이 아니었고 부와 권력을 활용한 “위선과  
탐욕 그리고 기름이 끼인 향락은 이미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타성이 되어  
버린 상태였다고 적는다.<sup>38)</sup> 장 교장은 도덕을 잣대 삼아 타인을 판정할  
자격이 없는 타락한 인물이었던 셈이다.<sup>39)</sup>

그러나 혜숙과 다르게 그는 어떠한 수치심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37) 박경리, 「黑黑百百」, 앞의 책, 122-123면.

38) 위의 글, 111면.

39) 이 소설에는 장 교장 및 그가 대변하는 당대의 이중 잣대를 보여주는 삽화가 또 하나 등장한  
다. 바로 혜숙의 친구인 영민의 에피소드이다. 기실 장교장이 요릿집에서 목격한 커플 중 여  
성이 바로 영민이었는데 자신 역시 불륜 관계에 놓인 황금순을 만나러 온 상황이었음에도 그  
는 그녀의 부정만을 매우 부도덕한 것으로 치부해버린다. 그런 영민의 옷을 공교롭게도 혜숙  
이 빌려 입고 장교장을 찾아갔던 것이다.

사회가 정해둔 ‘정상성’의 규범 및 그것을 내재화한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 빛어지는 감정이 수치심이라 했을 때, 궁지에 몰려 취업 청탁을 하는 여성 인물에게는 극단적인 주박이 된 수치심이 성을 거래하는 남성 인물의 내면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전후 사회에서 작동했던 ‘정상성’의 규율이 지닌 이중적 젠더 기준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해볼 수 있는 것이 이 소설이 발간될 즈음 크게 화제가 되었던 1950년대의 대표적인 성 스캔들, 박인수 사건이다. 수십 명의 대학생, 유부녀와 관계를 가졌던 그는 여러 차례의 공판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상대 여성들은 ‘타락한 여자’라는 사회적 프레임 안에 갇혀 날카로운 질타를 받게 된다. 당시 법원에서는 ‘법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는데 이는 정조 의무를 여성의 것으로 한정 지은 선언이면서 수치심을 여성에게만 중용했던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sup>40)</sup> 즉 혜숙과 같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려는 여성은 성적 대상화 되기 십상이면서도<sup>41)</sup> 젠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던 정조 관념에 의해 단죄될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교장실 밖에서 풀이 죽은 혜숙을 의아스러 바라보던 현선생은 혜숙을 잠시 동안 기대리라 일러두고 교장실 문을 두드릴진다.

장교장은 얼굴을 숙으린채 눈만 치뜨고 현선생을 본다. 그리고는 언짢은 얼굴로

「자네 누이라는 지금은 미망인 말이야, 좀 감독이 불충분해 내 눈이 장님이 아닌 이상 틀림없이 그 과부는 바람이 났네, 미안하네 마는 이번엔 자네 청은 거절이야」

현선생은 양손을 꼭 누르며 부빈다. 아무런 대답도 없다. 얼굴이 좀 창

40) 이하나, 앞의 글, 53면.

41) 예컨대 전후의 시기에 통용되었던 직업여성이라는 용어는 성매매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특수 직업여성’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대체로 직업여성에는 성매매 여성의 이미지가 담보되었다. 나보령, 앞의 글, 327면.



백해 졌을 뿐이다. 책상 위의 전화가 요란스리 울린다. 장교장은 천천히 수화기를 든다.<sup>42)</sup>

요컨대 이 소설은 장교장과 혜숙을 두 주인공으로 내세워 전자의 ‘수치심-없음’과 후자의 ‘수치심-과잉’을 대조한다.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소설은 수치를 느끼며 취업 청탁을 거절당한 혜숙의 모습과 수치심 없이 황금순의 전화를 받는 장교장의 모습을 교차시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규율의 이중성은 ‘흑흑백백’이라는 제목에도 드러나있다. 극단적인 흑백 논리, 즉 “전후 한국사회를 지탱한 힘은 여성들의 강한 생활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정 바깥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항상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 일쑤”였음을, “전쟁은 여성에게 삶의 무게와 사회적 비난이라는 이중적 고통을 안겨주었음”<sup>43)</sup> 인물이 느끼는 수치심의 강도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 4. 『안나 카레니나』 서사의 전유를 통한 수치심의 인과 탐구

이러한 양상은 뒤이어 발표된 「전도」(『현대문학』, 1957.3.)에서 좀 더 확장된다. 「흑흑백백」처럼 수치심의 감정을 부조하는 이 소설은 주인공의 이름이 혜숙(惠淑)을 거꾸로 쓴 숙혜(淑惠)인 점, 딸 이름이 모두 경이라는 점에서 전작과 여러 접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두 소설을 묶어 ‘수치심 2부작’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흑흑백백」과 착안점을 공유하는 「전도」는 일제 강점기 ~ 전후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통시적으로 설정하면서 뿌리 깊고 긴 수치심의 역할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를 위해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서사를

42) 박경리, 「黑黑百百」, 앞의 책, 123면.

43) 이하나, 앞의 글, 50면.

적극적으로 전유하여 안나의 수치심과 숙혜의 수치심을 겹쳐놓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주인공 숙혜는 이십 대 후반의 은행 조사과 직원으로 방직일을 하는 주인 내외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다. 그녀는 「계산」의 회인이나 「흑흑백백」의 혜숙처럼 “감수성이 예민”하고 “생활감정의 과란”<sup>44)</sup>을 통해 삶의 모순을 알아차리는 인물이다. 어떤 비밀로 인해 고향 H읍을 떠나 서울로 왔는데 십여 년간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며 최대한 “경계적(警戒的)이고 회피적(回避的)인 태도”<sup>45)</sup>로 살아왔다. 하지만 종내 비밀은 폭로된다.

“어... 어디든지 영화거리는 많아. 그 왜, 비련(悲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미쓰 김!”

윤은 특별히 미스란 어구에다 힘을 준다.

“이런 얘기에는 언제나 취미가 없으신 모양인데... 매우 현숙하셔서.....”

“.....”

(...)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오늘의 영화는 멜바의 연가, 멜바의 연가입니다. 이것은 이미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바이니 해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영될 영화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나 카레니나,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원작보다 좀 색다른 것은 우론스키가 음악가라는 데 있습니다. 예... 또.....<sup>46)</sup>”

은행원들을 위한 영화 상영이 있던 날 숙혜의 과거사를 알게 된 동료 직원 윤병수가 그를 ‘안나 카레니나’에 비유하며 조롱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거론된 영화 〈안나 카레니나〉는 동명의 소설을 1948년에 영화화한 것

44) 박경리, 「剪刀」, 『현대문학』, 1957.3, 88면.

45) 위의 글, 87면.

46) 위의 글, 93면.

으로 한국에서도 1950년대 중반 개봉되어 큰 이슈가 되었다. 47) 주지하듯 레프 톨스토이의 저작 『안나 카레니나』는 러시아 귀족 출신 안나의 비극적인 삶을 그려낸 소설이다. 안나는 한참 연상의 관료적인 남편과 건조한 삶을 살아가던 중 그림을 좋아하는 브론스키를 만나 사랑을 느낀고 이혼을 감행한다. 하지만 이 스캔들로 인해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의 공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끼다가 끝내 파국으로 내몰린다.

숙혜가 결혼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십년 전, 열여덟이 되던 해였다. 소위 그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이 말기에 이르렀을 무렵이다. 정신대(挺身隊)니 뭐니 하는 바람에 딸 가진 부모들의 마음도 한창 불안했었다. 숙혜는 남편될 사람과 관례적(慣例的)인 맞선을 한 번 보고 결혼을 했다. 그 시기의 정세가 그러지 않았다 해도 그때의 숙혜로서는 역시 그러한 순서를 밟아 결혼을 한 데는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짙은 지방색(地方色)에 싸여 인습에 굳어진 홀어머니 밑에서 숙혜는 그러한 방식 이외의 일은 꿈과 같은 것이었고, 또 일면으로는 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 이러한 숙혜에게 한 궤도(軌度)를 돌다가 부딪친 유성(遊星)처럼 나타난 사람이 강순명(姜淳明)이었다. 순명은 경이의 피아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던 것이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해거름이면 왔다 가는 그곳 여고의 음악교사였다. 그는 말이 적은 미혼의 사나이였다.

숙혜는 언제나 순명이 곁에 있으면 그의 선이 굵은 모습에서 섬세한 감정의 울동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건반을 누를 때 전신으로부터 모여든 하나의 선율이 손끝으로 흘러내리듯이 그것은 잔잔한 물결 같은 것이었다. 순명은 피아노보다 유명한 바리톤의 풍부한 성량(聲量)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 숙혜는 예술의 극치(極致), 아니 무엇인지

47) 1954년 11월과 12월에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에서 영화 안나 카레니나의 개봉을 알리는 대대적인 광고를 하였고 영화의 인기는 그 이후의 시기에도 이어졌다. 이를테면 안수길의 장편소설 『제 2의 청춘』(『조선일보』, 1958년 5월 28일 연재분.)과 김동리의 산문 「作品 속의 中年婦人 그 特質과 魅力」(『동아일보』, 1959.6.6.)에서도 안나 카레니나가 거론된 바 있다.

모르게 아름다운 삶의 극치를 느꼈다. 모든 것을 정화(淨火)시켜 주는 경건한 기도였다.<sup>48)</sup>

작중 숙혜의 과거 또한 안나 카레니나의 삶을 모티프 삼아 만들어낸 것처럼 그와 닮아있다. 일제 강점 말기, 열여덟이었던 숙혜는 강제 동원을 피하느라 인습에 따라 마음에 없는 결혼을 했다. 그렇게 아주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나날이 지속되었지만 딸 경이를 얻은 후에도 “감수성이 예민한 숙혜는 생활을 동화(同化)해 나갈 수가 없었”<sup>49)</sup>다. 그러던 중 음악 교사인 미혼 남성 순명을 만났던 것이다. 둘은 서로에게서 아름다운 삶과 사랑의 극치를 느꼈고 그 끝에 숙혜는 “대담한 이혼 요청”<sup>50)</sup>을 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숙혜의 이력과 안나 카레니나의 삶에는 모종의 접점이 존재한다. 『안나 카레니나』가 생산되었던 19세기 러시아는 “1860년대 러시아인의 낡은 사고와 1870년대 러시아인의 새로운 사고가 상호 충돌하고 전환”<sup>51)</sup>되는 과정 중에 놓여있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전환은 “관습이나 규범 속에서 계속 유지되어 온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붕괴 되어가는”<sup>52)</sup> 것과 맞물려 있는데 중심인물인 안나 역시 그러한 시대 정신을 담보한 “새로운 사고와 세계관을 지닌 ‘새로운 인간’”<sup>53)</sup>이었다. 즉 자신이 속한 상류 사회의 위선적 애정 관계와 삶에 반대하며 자신의 연애를 공개했던 것이다.<sup>54)</sup>

48) 박경리, 『剪刀』, 앞의 책, 89면.

49) 위의 글, 88면.

50) 위의 글, 89면.

51) 이영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 나타난 사고의 문제」, 『노어노문학』 29권 2호, 노어노문학회, 2017.6., 106면.

52) 위의 글, 같은 면.

53) 이영범, 앞의 글, 107면.

54) 따라서 『안나 카레니나』는 “연애소설이 아니라 일종의 본격적인 사회 사상 소설”(정창범, 『톨스토이, 부유한 삶을 거부한 작가』,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6, 102면.)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생각 같아서는 양큼스럽고 새침한 숙혜가 얼마나 당황해 할 것인가 참  
 꿀볼건이로고-그러나 정작 숙혜는 그러지 않았다. 찬물같이 냉정한 그 태  
 도는 이빨이 시릴 정도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다. 그 평정한 태도 속에  
 는 여태까지 볼 수 없던 **양양적(昂揚的) 자존**이 있었다.<sup>55)</sup>

숙혜 역시 자신에게 닥친 수난에 “양양적(昂揚的) 자존”과 “도발적인 반  
 항”<sup>56)</sup>으로 응수할 수 있는 주체적 인물이다. 순명과 사랑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곧장 자신의 생활을 “협오하고 청산에 골몰”했으며 “서로가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그런 초보적인 연애였는데도 불구하고”<sup>57)</sup> 비밀스러운  
 불륜이 아닌 공개 이혼을 택했다. 이 선언이 해방기 무렵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자못 의미심장한데 당대가 19세기 말엽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새  
 로운 사고방식의 충돌이 이루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결정  
 은 가혹한 “구구한 낭설”<sup>58)</sup>만을 거리에 유포시켰고 거기 더해진 순명의  
 미온적 태도에 수치심을 느낀 숙혜는 아이까지 두고 서울로 떠나오게 되  
 었다. 요컨대 숙혜는 안나 카레니나와 마찬가지로 관습의 벽에 충돌했던  
 전력을 지닌 인물인 것이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 국내에서 개봉했던 영화 <안나 카레니나>의 광  
 고 문구 안에서는 안나의 서사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련 광고는 1954년 11월부터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 신문 등  
 에 대대적으로 게재되었는데 그 문구라면 이와 같다. “차디찬 가정생활의  
 필연적인 반동을 가장 순간적인 애정에 구해본 “안나”가 윤리와 도덕으로  
 명찰하게 판단한 나머지 철로 자살로 자기자신의 생명을 마치는 “스토  
 리”. ”<sup>59)</sup>

55) 박경리, 「剪刀」, 앞의 책, 93면.

56) 위의 글, 92면.

57) 위의 글, 89면.

58) 위의 글, 같은 면.

59) 「안나 카레리나」, 『동아일보』, 1954.11.28.

대중이 영화를 실제로 어떻게 소비했는지와는 별개로, 개봉될 당시에 〈안나 카레니나〉는 이처럼 ‘찰나의 욕망 때문에 일탈을 행한 여성이 자신의 윤리적 과오를 인정하고 자살하는 내용’으로 이해되고 홍보되고 있었다. 즉 안나가 당시 러시아 사교계의 위선과 속물성에 맞서며 자유 의지에 따라 주체적인 사랑을 쫓았다는 점 등 긍정적인 의미는 소거되고 도덕적 규준에 맞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생을 마감했다는 이유로 고평된 것이다.

따라서 숙혜의 과거를 알아차리고 수치심을 자극하려 안나 카레니나를 운운했던 동료 윤의 말은 여전히 “무서운 계율(戒律)”<sup>60)</sup>이 그녀에게 “십자가”<sup>61)</sup>를 짊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약 십여 년간, 삶의 조건이나 환경은 크게 달라졌고 여성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주장 또한 강화되었지만 실질적인 관습과 담론 안에서 숙혜는 뗄 수 없는 꼬리표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은행에 사직서를 낸 숙혜는 집 주인 내외의 방직 일을 거들며 겨우 생활을 꾸려나간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금 수치심이 덮쳐온다. 숙혜가 은행원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을 때 “체모가 밝”고 “식자가 많은 여자”<sup>62)</sup>로 그녀를 우러러보았던 주인 부부가 실직 사실을 안 후부터 태도를 달리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숙혜는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주인 사내의 시선에서 “눈앞이 캄캄해지도록 참을 수 없는 치욕”<sup>63)</sup>을 느꼈다. 이 주인 부부 - 숙혜의 관계 변화는 「계산」과 「흑흑백백」에서 재현되었던 싱글 여성의 경제생활 문제, 성적 대상화의 문제를 반복, 변주하는 것이기도 하다.

60) 박경리, 「剪刀」, 앞의 책, 90면.

61) 위의 글, 87면.

62) 위의 글, 83면.

63) 위의 글, 100면.

그러나 눈동자만은 오욕(汚辱)을 태워버릴 듯이 타고 있었다.

“저 눈깔 좀 봐라! 저 눈깔!”

사나이는 미친 듯이 중얼거리며 이빨을 달달거리다. 숙혜는 뺨짓장 같은 얼굴 위에 수업이 땀방울이 솟아나고 있었다.

“저 눈깔! 정말 죽일 테다! 으흥!”

“경아앗!”

숙혜는 얼굴을 감싸며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팔매질 같은 울 부짖음이 방 속을 흔든다. 사나이의 눈앞에는 불이 팔팔 붙고 있었다. 그 벌건 불길 속에 불쑥 솟은 쇠덩어리 같은 여자의 모습, 사나이는 뭐가 뭔지 견잡을 수 없는 이상한 힘에 밀려 가뭇날을 곤두세워 가지고 덤벼들었다.

무서운 비명이 야밤을 찌른다.<sup>64)</sup>

과거사를 비롯하여 경제력, 성적 위협에 시달리는 숙혜는 결국 자신의 방에 침입한 주인 남자에 “서릿발같이”, “의연히” 맞서다가 가위에 찢린다. 안나 카레니나에 대한 언급이 일종의 복선으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이 결말부를 작가는 비교적 긴 지면을 할애하여 묘사한다. 특히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대신 “오욕(汚辱)을 태워버릴 듯이 타고 있”는 눈, “벌건 불길 속에 불쑥 솟은 쇠덩어리 같은” 모습의 숙혜가 잔인하게 살해되는 장면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부터 전후 사회에 이르기까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발버둥 쳤던 여성 인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 그리고 그 삶에 불가항력적으로 노정된 비극성을 단적으로 가시화한다. 이렇듯 「전도」는 『안나 카레니나』의 시공간적 배경 및 서사를 오버랩하여 수치심을 자아내는 억압적 인습 및 규율을 환기시키는 소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64) 위의 글, 104면.

## 5. 소결: 양양적 자존 수립의 길

박경리의 이름을 널리 알린 「불신시대」(『현대문학』, 1957.8.)의 핵심은 잘 알려져 있듯 타락한 세계와 속물적 자본주의를 고발하는 데 있다. 이 때 고발을 위한 장치로 등장하는 것 역시 ‘감정’인데, 아이를 잃은 진영의 지극한 슬픔과 애도마저 매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통해 전후의 부조리가 폭로되는 것이다. 다만 그 같은 사건의 연쇄 속에서도 진영은 끝내 “항거할 수 있는 생명”<sup>65)</sup>을 느끼고 다시금 혹독한 일상으로 걸어들어간다.

이 결연한 주체의 전사(前史)는 물론 이전에 발표된 「계산」, 「흑흑백백」, 「전도」의 인물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열거한 소설들에서 박경리는 ‘감정’을 주체적 삶의 지지대 삼는 인물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감정이 삶에 노정된 불합리성을 측량하는 척도로써 활용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회인이나 숙혜 같은 인물은 사회가 강요하는 객체화된 생을 거절하면서 설령 비참해질지라도 자존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다.

「전도」에서 숙혜는 이와 같이 말하기도 했다. “빵의 보장을 받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나는 누구에게도 경멸을 당하고 또 모욕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빵을 위해서만이 나는 가장(假將)과 비밀에서 오는 굴종이 필요했던 것이다. 버리면 된다.”<sup>66)</sup> “산다는 극히 간단한 이유만으로 죄인이 될 수 밖에 없”<sup>67)</sup>는 생의 굴레를 벗어내려는 이 독백은, ‘배고픔보다 더한 피멍이 ‘존엄을 침해당한 일’이라고 했던 박경리 자신의 목소리라고 절묘하게 겹쳐진다.

65) 박경리, 「不信時代」, 『현대문학』 32, 1957.8.; 『박경리 문학전집』 19권, 지식산업사, 1987, 223면.

66) 박경리, 「剪刀」, 앞의 책, 91면.

67) 위의 글, 98면.



박경리의 초기소설은 그 배후에 작가 자신의 형상이 잠복해있다는 점, 감정 문제가 돌올하게 묘파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신변소설적 성격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내면성과 낭만성을 확대’<sup>(68)</sup>했다는 비판 안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박경리가 여성의 입장에서 전후의 현실을 전유했던 전략적 방식으로, 또 자존을 담보한 문학적 주체를 수립해 가는 과정으로 적극적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쩌면 감정이란 현실 속 그에게도, 양양적 자존 의 수립을 위한 유일한 담보물이었는지 모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박경리 지칭-인용자 주)는 오늘도 펜을 들고 있는 것이다. (...) 의지(意志)가 10퍼센트? 아니 90퍼센트가 감정(感情)으로 뭉쳐진 인간으로 내 자신을 분석한다.”<sup>(69)</sup>

68) 서영인, 앞의 글, 260면.

69) 박경리, 「나의 문학적 자전」, 앞의 책, 139-140면.

| 참고문헌 |

- 박경리, 「計算」, 『현대문학』, 1955.8.  
박경리, 「黑黑百百」, 『현대문학』, 1956.8.  
박경리, 「剪刀」, 『현대문학』, 1957.3.  
박경리, 「不信時代」, 『현대문학』 32, 1957.8.  
박경리,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나남, 1994.  
박경리, 『환상의 시기』, 나남, 1994.
- 고선희, 「정비석 소설의 섹슈얼리티와 전후의 자본주의적 주체 구성」, 『한국사상과 문화』 84, 한국사상과 문화학회, 2016, 85-110면.  
김성보 외,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1950년대』, 창비, 2016.  
김양선, 「지적 해부와 민감성 사이, 전후 현실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 - 박경리의 전후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7권, 2011.12, 131-149면.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제 45집 2호, 2006, 7-48면.  
나보령, 「1950년대 직업여성 담론을 통해 본 여성들의 일과 결혼 - 정비석의 여성전선, 세기의 종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23, 2017.9, 319-353면.  
서영인, 「박경리 초기 단편 연구-1950년대 문학 속에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999.2, 295-276면.  
이명호, 「문화연구의 감정론적 전환을 위하여: 느낌의 구조와 정동경제 검토」, 『비평과 이론』 20권 1호, 2015년 봄, 113-139면.  
이선미 외,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이영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 나타난 사고의 문제」, 『노어노문학』 29권 2호, 2017.6., 103-124면.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 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역, 민음사, 2015  
윌리엄 레디, 『감정의 항해』, 김학이 역, 문학과 지성사, 2016  
J.M.바바렛, 『감정의 거시사회학』, 박형신 외 역, 일신사, 2007.

## &lt;Abstract&gt;

## The study for emotional dynamics described in Pak Kyongni's 1950's shorts stories

Jeon, Soyoung

In the autobiography published in 1984, Pak Kyongni assured that the origin of her literature was related to the words, 'dignity' and 'alienation.' Poverty resulted in the significant wound in her life, but the experience to be damaged for her dignity as a human-being made bigger scar. This experience means the violence related to gender. Whenever Pak experienced a series of incidents, she felt big sense of shame and the sense of shame was imprinted as an evidence of alienation, she said. She was born in 1926 and made her debut in 1955. In the foundation of Pak's literature that continued the creative activities passing the drastically changing times, there are the underlying senses of shame.

It seemed that the inevitable experience of otherizing as a woman and the feeling to secure the will not to be defeated were originated from the innermost part of her life and literature. What this is clearly revealed is the world of short stories in 1950s. Hence,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ubject of feelings occurred in her early short fictions (chapter 2) and methodological writing of sense of shame (chapter 3) in the subjects with 'Calculation(계산),' 'Black and White(흑흑백백),' and 'Scissors(전도)' which had not been highlighted to date.

Key words: Pak Kyongni, emotional dynamics, sense of shame, Caculation, Black and White, Scissors

투 고 일: 2021년 8월 31일

심 사 일: 2021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9월 24일